

01

해양수산부, [2월 해양생물]로 ‘바다오리’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해양생물로 ‘바다오리’(학명 *Uria aalg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오리는 몸길이 약 38~43cm, 몸무게 약 1kg 내외의 바닷새다. 계절에 따라 깃털 옷을 갈아입는 멋쟁이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얼굴 부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여름에는 얼굴과 목 전체가 잿빛의 검은색을 띠며, 겨울에는 눈 뒤로 짙게 난 줄을 빼고는 머리 옆면과 목의 앞면이 흰색으로 변한다.

바다오리는 주로 바다에서 생활해 육지에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11월 초~이듬해 3월 하순)에 동해안 먼바다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바다오리는 해안의 암반이나 연안 암벽 위에 알을 낳아 집단 번식한다. 북태평양·북대서양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로 오징어와 새우, 한류를 따라 이동하는 작은 물고기 등을 먹고, 먹이 활동 중 그물에 혼획돼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출처_ 뉴시스 www.newsis.com

02

멸종위기 희귀철새 ‘빨쇠오리’를 지켜라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빨쇠오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는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지난 2월 27일 시작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주 서귀포시 마라도 길고양이를 섬 밖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 2월 27~28일 빨쇠오리가 주로 나타나는 마라도 내 지역 등에서 예찰 활동과 집중적인 감시를 벌이며 빨쇠오리 보호에 나선다.

천연보호구역 마라도는 천연기념물 빨쇠오리와 더불어 습새 등 주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번식지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빨쇠오리는 한국, 일본, 태평양 동북부에 분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5천~6천 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철새다.

도서 해안이나 섬 주변 암벽 또는 암초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며 번식기간은 2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다.

출처_ 연합뉴스 www.yna.co.kr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의 빨쇠오리 (사진제공=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03

용인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확대 컨설팅 지원 4월말까지 주소지 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인증에 필요한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 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부문 등에 비용을 지원해 절차를 돕는다. 초기 투자비용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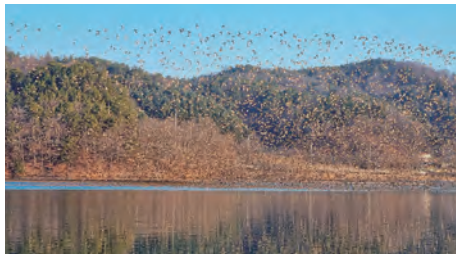
올해는 2곳을 모집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 썩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농가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출처_ 데일리엔 www.dailyen.net

04

세종에 나타난 가창오리떼



고목저수지의 가창오리떼 (사진제공 : 오마이뉴스 © 정상영)

지난 2월 25일 세종시 고목저수지에 가창오리 약 3만개체가 찾아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창오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돼 보호받는 국제보호종이다. 이런 가창오리가 세종시 내륙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가창오리 무리는 금강 정비사업 이후 사라졌다가 수문이 개방된 2018년 이후 금강에서 아주 적은 개체가 확인된 게 전부였다. 이들은 시베리아로 북상하기전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세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조류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42만 마리가 월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_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